“군승 · 교법사가 꿈”…불교 문턱 낮추다

조계종 국제전법단, 홍대선원서
청소년 인재 양성 템플스테이
조계종 종립 고교생 13명 참여
대학탐방·포틀럭 파티·명상체험
학업·진로 등 또래와 생각 나눠
학생들 호응 “4, 5기도 계속 참여”

이민우 수습기자


홍대선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며 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엄숙하고, 어렵고, 힘든 수행을 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종교.’ 불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이미지다. 하지만 이는 선입견에 가깝다. 지금의 불교는 변화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로 대학 탐방을 하고, 취향 따라 각자 마련한 음식을 나누는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도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소리명상으로 명상에 입문해보고, 또래친구들과 서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해본다.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변화와 고민이 보여주는 변화들이다.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은 2월 24~25일 서울 홍대선원에서 조계종 종립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재 양성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 모집된 13명의 학생들은 ‘선연’이라는 이름 아래 3번째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첫날 오후 3시 시작된 일정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 탐색을 위한 연세대 탐방을 마치고 템플스테이 장소인 홍대선원에 들어섰다. 배고픈 학생들을 반기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포틀럭 파티였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준비한 오곡밥과 각종 나물 및 전, 그리고 일부 게스트들이 가지고온 약식, 인도 커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본 학생들은 빠짐없이 접시를 비우고 “맛있다” “또 먹고 싶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자리에 함께한 외국인 투숙객들 덕분에 국제적인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은 덤이었다.

저녁공양 후 진행된 소리명상 체험에서 학생들은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다. 때마침 내리는 비가 창문을 때리면서 자연의 소리까지 어우러졌다. 학생들 모두 싱잉볼 소리와 빗소리를 벗삼아 내면에 집중했다.

박성원 군(동대부고1)은 “소리에 집중하니 졸음도 오지 않았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규영 양(광동고1)은 “요즘 학업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소리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니 편안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준한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설명하며 학생들에 다가갔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도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라”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였다. 또한 “나 자신을 찾는 공부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에게 책 〈슬기로운 출가생활〉을 선물했다.

이재희 군(동대부속영석고2)은 “준한 스님 말씀처럼 올해는 나 자신을 믿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병진 군(광동고1)도 “(이번 템플스테이가)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다. 지금까지 모든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있을 4기·5기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군승이나 교법사로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건우 군(동대부속영석고2)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교법사님 말씀이 많다. 저도 교법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며 “군법사가 되기 위해 올해 출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인 양(동대부속여고2)도 “교법사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레 소통하는 시간도 많았다.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법사가 1지망 진로”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정범 스님은 “국제적인 포교인재로 성장할 자질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홍대선원에서 젊은이와 외국인이 함께 불교를 접하는 분위기를 체험시키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잘 따라와 줘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

진우 스님, 2월 27일 임명



템플스테이 운영과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 등에 힘쓰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새 단장에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7일 새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만당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면서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만당 스님이 종단에서 다양한 소임을 맡은 경험으로 사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만당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뜻에 따라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선명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만당 스님은 지종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제17대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불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송파 세 모녀 10주기…“평등세상 발원”

조계종 사노위, 2월 26일 추모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2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사진〉

2014년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이들이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는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실행돼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가 필요한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그러는 사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3년 1월 성남에서 모녀 죽음 등 비극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때문에 이날 추모제는 가난으로 생을 마감한 모든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노위 부위원장 혜도 스님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정부와 국회는 그 생명의 존엄함에 큰 무게를 느껴야 한다. 총선, 대선에서 각종 공약이 남발됐지만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선사의 유산 실천으로 이루자”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탄신 97주년 다례재



한마음선원을 창건하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7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1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대행 선사 탄신 97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의 헌향·헌다를 시작으로,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 본원·지원 신도 회장단 등의 헌화, 대행 선사 영상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대행 선사의 영상 법문을 통해 다시 정진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광대무변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다. 내려주신 그 한마음 주장자를 두루두루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부대중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러 선사께서 오신 뜻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세상을 밝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마음법을 우리 사부대중이 배워 대행 선사가 이끌어주신 대자유인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를 향한 마음의 편지 낭독(이병현 거사)과 본원합창단의 음성공양도 이뤄졌다. 신중일 기자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선출

2월 29일, 34차 운영위 회의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 진명 스님이 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은 정관 스님이 맡게 됐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2월 29일 서울 법룡사에서 ‘제3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선출된 진명 스님과 정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은 “전국 지회장을 비롯해 모든 운영위원 스님들이 적극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용 스님은 “모두가 13대 집행부의 주인공”이라며 “우리는 어떤 소임자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수행자로서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3대 전국비구니회 경과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운영위원회 및 지회장회 활동계획의 건 △조직개편에 관한 건 △기타 감사 선출의 건 등이 논의 됐다. 임은호 기자

광주 전남 산하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율강 및 범음법패 전통불복장 교육 안내말씀

한국불교태고종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사분율 범음범패 전통불복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를 기원합니다.

1. 해동율맥 대은 금담 초의 범해 제산 호은 금해 만암 묵담 혜은으로 계승 유지되어 오고있는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에서 원전에 입각한 사분율 강의를 시작합니다. 조계종은 본사에 따라 율원이 있어 강의를 하고 있으나 본종을 비롯한 여타 종단은 특별한 교육장소가 없어 종도스님들의 부름에 따라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에서 강의를 개최하는 바이며
2. 범음 범패도 호남소리 경기소리 영남소리가 각각 작법의 특색이 있어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적으로 범음소리를 교육코자 합니다.
3. 전통불복장은 금년까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기생을 모집 하오니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는 근본뜻을 정확히 부각시킴과 동시에 점안 작법에 3증사의 점필법과 불신에 점필 지점을 확실히 교육하여 조상경에 나타난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사문(四門)을 잘 습지해서 전통을 계승하고 광도중생을 지상목표로 삼고자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코자 하오니 뜻있는 사부대중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개강 : 4월 ~ 11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과 목	사분율 (매주 수요일 오전)	범음 범패(매주 수요일 오후)	전통 불복장 (매주 목요일)
교 제	원전 사분율 (요진삼장불타야사 공축불념역)	석 문 의 범. 영산각배권공 주해정보요집	조상경 (금강산 유점사 판)
시 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0분~ 3시 30분	3기생 오전 10시~12시 전수행 오후 1시30분~ 3시 30분
강 주	해동율맥 11대 도월 수진	김제 석불사 어장 휴암 광주 법흥사 우하	강주: 도월수진 조교: 대진
특 전	조 교 증사	특별 제 의식 청장 및 증참	특별불복장 작법사
수강료	10만	10 만	초급반: 10만 전수반 : 5만
비 고	※ 특별한 경우 시간은 유동적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전화 : 061-381-2683 팩스:381-2749 홈페이지: www.dyhs.kr(담양 용화사) 홈페이지 참고